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경제) 세계무역기구(WTO), '26년 세계 무역성장률 0.5%로 대폭 하향 조정 2
- '25년 하반기 무역 성장세를 유지되나, '26년은 관세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둔화 전망

📊 경제통상 동향

- (통상) 美, 대중 선박 항만 사용료 인상 조치...해운·소비재 시장 영향 우려 4
- (규제)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 조치...조선·해운 분야 정책 불확실성 확대 5
- (의회) 美 상원,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對中 투자·수출통제 법제화 추진 6

🏛️ 의회법안 동향

- 무역 관세, 노동법 개정, 국방수권법 등 상원 발의 3건 7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10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1

📅 워싱턴 D.C. 주요일정

10.14(화)	• 9월 NFIB 낙관지수(NFIB optimism index)
10.15(수)	• 연준 베이지북(Fed Beige Book)
10.16(목)	• 9월 미국 소매판매(U.S. retail sales)
10.17(금)	• 9월 신규착공건수(Building permits)

(경제) 세계무역기구(WTO), '26년 세계 무역성장률 0.5%로 대폭 하향 조정

1. 개요

- 세계무역기구(WTO), 최신 글로벌 무역 전망 및 통계 보고서(10월)에서 '25년 하반기 무역 성장세는 유지되나, '26년 무역 성장은 둔화 전망
 - '25년 세계 상품 무역성장률은 기존* 0.9%에서 2.4%로 상향 조정, '26년 무역 성장률은 기존 1.8%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 발표
 - * '25년 전망치 8월 중간 0.9%, (4월, -0.2%). '26년 전망치 8월 중간 1.8%, (4월, 2.5%).
 - 미국 관세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에도, '25년 세계 무역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했으나, '26년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서비스 무역 성장률은 '24년 6.8% 성장 대비 '25년에는 4.6%, '26년에는 4.4%로 소폭 둔화 전망
 - '25년 서비스 성장 둔화는 운송·여행 부문 위축에 기인하며, 운송 부문은 글로벌 상품 무역 둔화와 운송비 상승의 영향으로 4.5%('24년)→2.5%('25년)→1.8%('26년)로 점진적 하락, 여행 부문은 11%('24년) → 3.1%('25년)로 성장 약화
 - 세계 GDP 성장률도 '25년 2.7%에서 '26년 2.6%로 소폭 하락 전망

2. 상세 내용

- '25년 세계 무역 2.4% 성장 전망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선행 수입, 인공지능(AI) 제품 수요 급증, 신흥시장의 강력한 성장이 호조 요인으로 작용
 - '25년 상반기 세계 상품 무역량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 우호적 거시경제 여건(물가하락, 재정지원 정책, 신흥시장 강세)도 성장에 기여
 - 미국 교역국 및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전략 품목(기계류, 자동차, 목재 등) 대량 선제적 수입으로 수요 급증에 따른 재고 확보

- 반도체, 서버, 통신 장비 등 AI 관련 상품이 '25년 상반기 전체 무역 성장의 43% 전인, '25년 상반기 1.92조 달러로 '24년 동기 1.61조 달러 대비 20% 증가
- * AI 관련 '25년 상반기 무역 성장은 북미(+28.7%)와 아시아 지역(+25.2%)이 주도, 유럽(+9.9%)
- 아시아가 '25년 무역 성장주도, 아프리카 및 남미 신흥국 간 교역도 증가
- * 수출 증가율:아시아(+10.4%), 남미 및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7.4%), 아프리카(+6.3%), 수입 증가율: 남미(+14.7%), 아프리카(+13.7%),

□ '26년 세계 무역 성장 둔화는 '25년 말~'26년까지 선행 무역 효과가 완화된에 따른 부담 가중,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 본격화에 따른 타격에 기인

- '25년 북미 중심 재고 확대가 상반기 무역 성장에 기여했으나, 하반기 경기 둔화, 재고 조정으로 성장세 약화 전망
-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비용 상승, 소비자 지출 감소,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정책 위험 증가가 기업들의 투자 위축
- 선진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 기업 및 소비자 신뢰 하락, 고용 및 소득 증가 둔화 등 무역 및 제조업 생산량 약화 징후 포착
- '25년 아시아의 무역 성장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26년에는 성장세 둔화 전망

□ 상품 및 서비스 주요 항목별 분석

- (상품 무역) 세계 상품 무역 가치는 '25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6% 증가
- 사무용 및 통신 장비 부문이 1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화학제품(+10%), 기타 기계(+9%), 성장, 연료(-11%), 광물(-5%) 철강, 자동차(-3%)는 감소
- '25년 상반기 상품 수출입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게 증가(수출 13.7%, 수입 6.3%)했으며, 특히 원자재 제품의 수출이 강세, 선박, 차량 및 기계류 수입도 대폭 증가
- '25년 상반기 상품 수출은 홍콩, 중국이 첨단 제품 수출에 기인해 성장(+13.3%)주도, 일본(+6.4%), 미국(+5.0%), 유럽연합(+3.7%) 성장 기록
- 중국의 대미 직접수출은 감소했으나, 다른 아시아 경제권과 독일로의 수출 증가로 상쇄돼 전체 수출이 6.0% 증가

- (서비스 무역) '25년 1분기 세계 서비스 무역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기인, 전년 대비 5% 소폭 성장
 - '25년 상반기 아시아는 중국(+15%), 인도(+12%), 일본(+11%)의 견인으로 서비스 수출 선두, 영국(+14%), 미국(+7%), 프랑스와 독일, 싱가포르 등 완만한 성장세 유지
 - 서비스 무역에서 총 무역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타 상업 서비스' 부문의 둔화가 성장 감소세를 이끌었으며, 금융 서비스 부문도 전 세계적으로 3% 성장 약세 기록
 - 운송 서비스는 '25년 1분기 3% 성장, 아시아(10%, 특히 중국 31% 증가)가 주도 국제 관광 수익은 5% 증가해 '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아시아(중국 96%, 베트남 33%, 일본 25%, 태국 18% 등) 국가들에서 높은 증가율 기록
 - 전반적으로 글로벌 서비스 무역은 주요 부문과 지역에서 상이한 성과를 보였으나, 디지털 및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부문에서는 강한 성장세 유지

□ 응고지 오킨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25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세계 무역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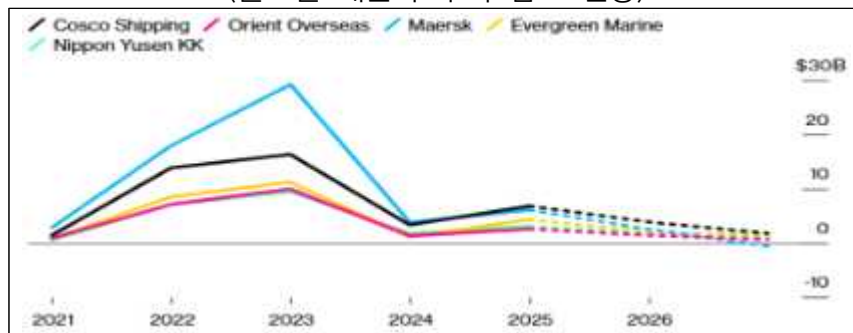
-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없었다면 '25년 세계 무역 성장은 더 견고했을 가능성을 시사
 -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도 신중한 관세 대응, 인공지능 시장 성장 잠재력,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역외 교역 확산이 '25년 무역 위축 완화에 기여했다고 언급
- '25년 세계 무역 성장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표하면서도 '26년 세계 무역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 촉구
 - '25년 4월~8월 사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일시 중단되었음에도 관세의 영향은 지속되어 세계 무역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26년에 미국 고율관세에 따른 충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WTO 세계 무역 전망(10.7), 인사이트(10.7)

(통상) 美, 대중 선박 항만 사용료 인상 조치...해운·소비재 시장 영향 우려

- (개요) 美, 중국 선박 대상 항만 사용료 인상...톤당 50달러 부과, 3년간 추가 인상
 - 미국 정부는 10월 14일부터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항만 사용료를 신규 부과하며, 3년간 매년 30달러씩 추가 인상할 예정
 - 이번 조치는 미국 해운 및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산 해운 의존도 완화를 명분으로, 2024년 해운노조 청원과 관련 무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 (상세) 글로벌 해운 및 공급망 비용 상승 불가피, 무역 환경 불확실성 확대
 - 미국 정부는 자국 항만 및 선박산업 재건, 공급망 위험 억제를 목표로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이 소매·제조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특히,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산 선박 노선 회피, 노선 재조정, 비용 전가 등 대응에 착수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체는 수입 감소 및 일자리 축소를 전망
 - * 항만 사용료는 2026년까지 관련 해운업계에 약 32억 달러의 추가 비용 초래 예상
 - 업계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의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연말 성수기 물류 차질과 무역 감소 등 부정적 영향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
 - 이번 항만 사용료 인상은 11월 10일 예정된 미·중 통상협상 마감일을 앞두고 협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

〈글로벌 해운사 수익 감소 전망〉



[자료: 블룸버그]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 ■ 자료원 | 폴리티코(10.12), 블룸버그(10.14) |

(규제)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 조치...조선·해운 분야 정책 불확실성 확대

• (개요) 중국, 한화오션 미 자회사 대상 제재 조치 발표(10.14)

- 중국 상무부는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포함하고,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의 모든 거래 및 협력을 금지하는 조치 시행

* ▲ Hanwha Shipping LLC ▲ Hanwha Philly Shipyard Inc. ▲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 Hanwha Shipping Holdings LLC ▲ HS USA Holdings Corp.

• (상세) 미국의 對中 항만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성 제재 조치 이행

- 중국은 한화오션 미 자회사가 미국의 對中 제재에 협력해 자국 해운·조선업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불공정 통상 조치 지속 시 대응 강화 방침 시사
- 제재 내용은 ▲ 중국 내 금융·물류·기술 기관의 거래 금지 ▲ 자산·지분 거래 차단 ▲ 투자 및 협력 제한 ▲ 중국 내 기관·개인의 연계·지원 활동 금지 등으로 구성
- 동 제재는 미국의 중국산 및 중국 소유 선박 대상 항만세 부과와 동일한 시점*에 시행되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성 조치로 해석

* 미국은 10월 14일(현지 시각)부터 중국 연계 선박에 순톤당 50달러의 항만세 부과 시행

• (반응) 제3국 기업 대상 제재 첫 사례로 조선·해운 분야 불확실성 심화

- (전문가) 중국이 미국의 對中 통상 조치에 협력한 제3국 기업에 제재를 적용한 첫 사례로 평가하며, 조선·해운 분야로 통상적 파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
- (조선·해운 업계) 동 제재로 선박 제작 및 항만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미·중 간 통상 대응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 저하와 프로젝트 투자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고 평가
- (현지 언론) 중국의 이번 제재를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MASGA)’ 정책에 참여하는 동맹국 기업에 대한 견제 조치로 평가하며, 향후 유사 조치 확대 가능성 보도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로이터([10.14](#)), SCMP([10.14](#)), 파이낸셜타임스([10.14](#))

(의회) 美 상원,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對中 투자·수출통제 법제화 추진

- (개요) 상원, 경제안보 강화 중심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가결(10.9)
 - 미 상원은 '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77대20으로 가결, ▲대중국 투자 제한 ▲AI 반도체 수출통제 ▲외국인 농지·민감 시설 투자심사 강화 등 다수의 경제안보 조항 포함
 - 상원은 자국 내 첨단산업 보호와 대중국 기술 유출 방지를 '국가안보 우선 과제'로 명시하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병합
- (상세) 對中 투자 통제 및 AI 반도체 미국 우선공급 등 '경제안보 법제화' 추진
 - FIGHT China Act: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 발의로, 미국 자본의 중국 내 첨단기술(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투자 금지 또는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여 기술 유출 방지 및 국가안보 강화 추진
 - GAIN AI Act: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및 짐 뱅크스(공화·인디애나) 의원 공동 발의로, AI 반도체 수출 시 미국 내 구매자에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여 국내 산업의 공급 안정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 추진
 - S.A. 3340: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발의로, CFIUS에 국가안보상 민감 시설 목록 관리 및 외국인 투자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안보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S.A. 3810: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민주·네바다) 및 마이크 라운즈(공화·사우스다코타) 의원 공동 발의로, 농업·생명공학 분야를 CFIUS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중국·이란·러시아·북한 관련 기업의 토지·시설 인수를 제한하여 핵심 산업의 안보 보호 강화
- (반응) 산업계는 비용·공급 차질 우려, 의회는 자국 중심의 기술체계 구축 기대
 - 미 상공회의소 및 일부 산업계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과 우선 공급 규제가 단기적으로 국내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
 - 양당 의원들은 법안을 통해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투자 구조를 강화하고, 중국으로의 기술 및 자본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 표명
 - 상·하원 간 법안 조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재표결 추진 예정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WP(10.9), 인사이드(10.10)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운송 (10.8)	S.2291 (상) (10.8)	Cynthia Lummis (공)	〈코너법(Connor's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트럭 운전자의 도로에서의 상식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nforcing Commonsense Rules of the Road for America's Truck Drivers)” 입법화 상업용 트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 영어 구사 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상업용 트럭을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제
무역 관세 (10.7)	S.J.Res88 (상) (10.7)	Ron Wyden (민)	〈美 전역 비상사태 종료 공동 결의안(A joint resolution terminat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to impose global tarif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적 관세 부과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종료 본 결의안은 행정부가 비상권한을 광범위한 관세(철강·알루미늄 등 수입품 대상) 부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
美 노동법 개정 (10.8)	S.2984 (상) (10.8)	Tim Scott (공)	〈미국 노동법 개정안(The Employee Right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근로환경 확보 기업의 고용 관행 투명성 제고, 근로자 단체 활동 보호,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 주요 조항 포함
美 국방 수권법 (10.9)	S.2296 (상) (25.7.15)	Roger Wicker (공)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국방 예산 승인 (77-20표) 군사정책 방향 설정, 국방비 지출 항목 규정, 군 현대화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및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포함

* 미국 동부 시간 10월 14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Soon You'll Be Able to Shop Walmart in ChatGPT. Here's Why It Matters (이제 월마트 쇼핑도 챗GPT로?)
	OpenAI와 월마트간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몇 달 내 소비자들은 신선제품을 제외한 모든 월마트의 상품을 챗GPT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양사는 AI가 고용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
The Washington Post	Recession warning signs to watch: Goodbye lipstick, hello Hamburger Helper (경기 침체 신호...립스틱이 아닌 간편식 판매량에 주목해야 해)
	지난 몇 년간 “립스틱 지수”가 경기 침체 지표로 주목받았으나, 이제는 간편식 판매량, 골판지 상자 생산량, 중고의류 판매량, 이직률, 주택담보 대출 건수 등에 주목해야 해
The New York Times	Renewable Energy Is Booming Despite Trump's Efforts to Slow It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에도 재생에너지 시장은 ‘활황’)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보조금 철폐 등을 통해 반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세금 공제 만료 전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프로젝트에 서둘러 착수하며 관련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CNN	Lack of weather data due to Trump's budget cuts impacted forecast for deadly Alaska storm (치명적인 알래스카 폭풍...예산 삭감이 원인?)
	일 2회 기상풍선이 발사돼 기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 주말 폭풍이 알래스카를 강타했을 시 데이터를 수집할 풍선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USA Today	What's for dinner? More are turning to the grocery store's prepared meals (오늘 저녁메뉴는?...마트 델리코너로 향하는 소비자들)
	식품 산업 협회에 따르면 마트 델리코너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판매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편리함과 가격이 소비량 증가의 주요인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슈퍼마켓이 식사 구매처 2위에 등극해

* 미국 동부 시간 10월 14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US25-37	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2025.10월
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2025.09월
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2025.09월
US25-34	'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2025.09월
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9월
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5.08월
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30	미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25.08월
US25-29	美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8월
US25-28	美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5	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7월
US25-24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2025.0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코인사-22 (2025.5.13.)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